

경인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(2022년 1월 ~ 2022년 12월)

[언론중재 시정권고에 의한 반론보도]

지난해 11월1일자 3면 '권락용 도의원 '대장동 로비 의혹' 해명했지만...물음표 여전', 인터넷신문 동일자 정치면 '권락용 경기도의원 '대장동 로비 의혹' 해명했지만...물음표 여전' 제목의 기사에서 "돈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던 권 의원은 수십억원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 대가를 나눠 받았을 것"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. 이에 대해 권락용 의원측은 "대장동 의혹과 관련 어떠한 대가도 받은 바 없다.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다"라고 알려와 반론보도 처리.

[법원 판결에 의한 반론보도]

2019년 7월 3일 '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'총판 갑질' 의혹', 2019년 7월 4일 '반품 20% 제한' 총판 옥전 천재교육' 및 '이자놀이·출고제한 조치... "본사서 채무액 잘못산정" 목청', 2019년 7월 8일 '불공정 관행 근절 외치던 공정위, 천재교육 갑질 알고도 '침묵'"이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천재교육이 총판업자에게 갑질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. 이에 대하여 천재교육은 현재 각 총판당 평균 판촉물 비용은 연 평균 500여만원 수준으로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씩 밀려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,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도서에 한하여 반품률을 20%로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천재교육 총매출의 30%, 발행도서 종수 기준 5.7%에 해당하며, 총판업자의 재고는 총판업자의 출고량 판단 미숙 또는 판매실적 부진 때문이지 반품을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와 반론보도 처리.

[언론중재 시정권고에 의한 반론보도]

6월 23일자 8면 '경비원 문지기로 쓰는 용인 아파트 관리소장', 인터넷신문 6월 22일자 지방뉴스면 '비밀번호 두고 경비원에 문 열라는 관리소장 "나만의 방식" 호소까지' 제목의 기사에서 "용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경비원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"고 보도한 바.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"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현관문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위해 호출버튼을 눌러 경비실과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 및 공동현관문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비원을 문지기로 쓰거나 갑질을 한 것이 아니다"라고 알려와 반론보도 처리.

[법원 판결에 의한 반론보도]

2021년 5월 26일자 '광주 중대동 물류단지 재추진...광주안씨 광양군파 종종땅 매각 '잡음' 기사에서 해당 종종이 토지매각공고 당시 최고가 입찰방식을 내놓고 결과 무시한 채 수익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한 바.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로지스힐은 종종의 규약과 각각의 의결기구의 승인절차 및 약정서 제출에 의한 재입찰절차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이었음을 알려와 반론보도 처리.

[수정 요청에 의한 처리]

5월 19일자 "'안산 사동공원 부지 보상하라' 일상 회복되니 다시 커진 목소리' 기사에서 해안주택조합 측의 요청으로 법원 판결 관련 내용을 보충하길 원하는 바 수정 처리.

[수정 요청에 의한 처리]

10월 27일자 '남양주 장현리 입주민들 '지역주택조합 반대' 집회' 기사에서 시 관계자 멘트가 시에서

나서 반대한 멘트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수정 요청.